

# 봄, 봄, 봄을 느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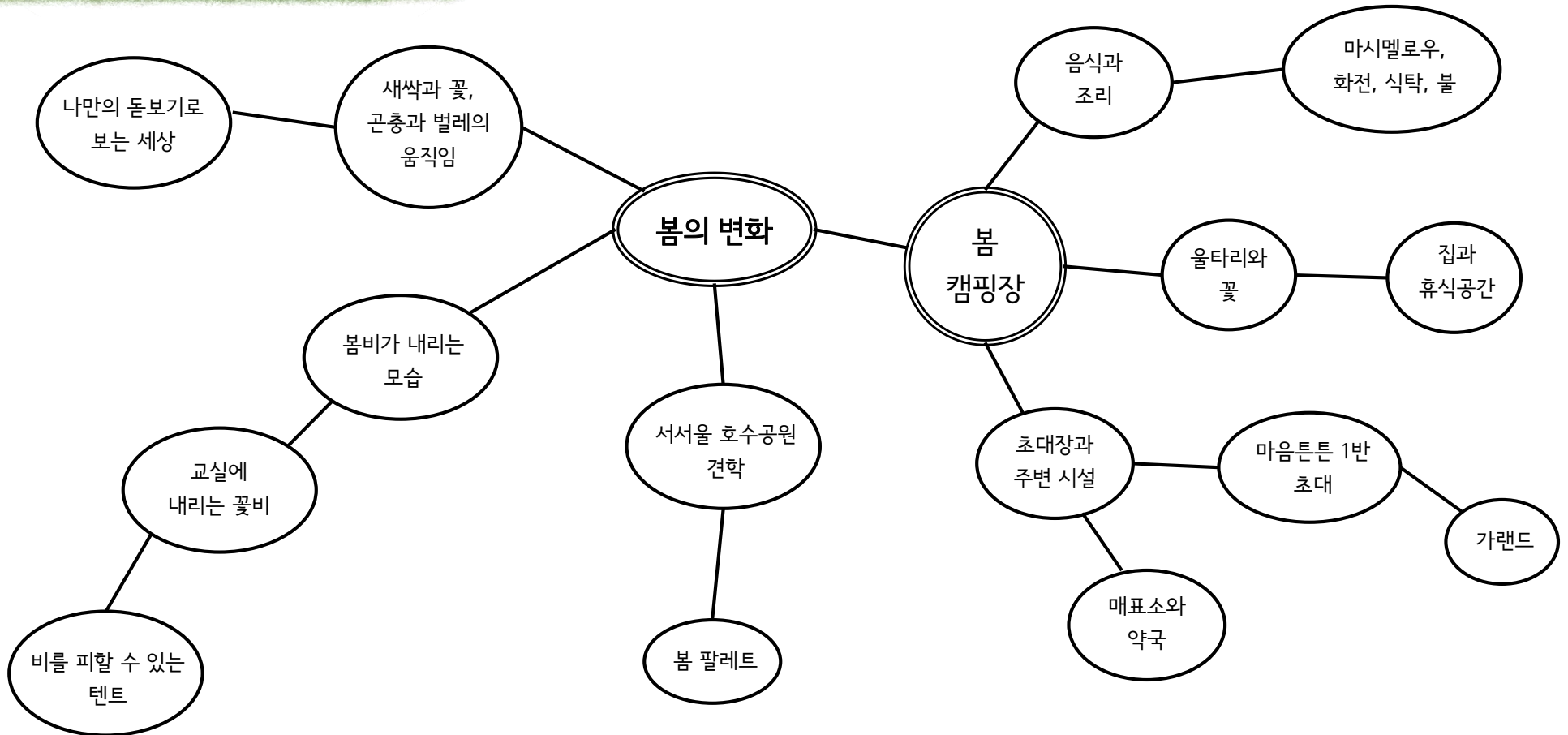


2023.04.03 ~ 2022.05.04  
마음튼튼 2반 친구들의 즐거운 놀이

## '봄, 봄, 봄을 느껴요' 놀이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봄의 화단에는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유치원 마당으로 날아드는 나비들과 마당에 피어나는 꽃봉우리들은 친구들의 바깥놀이를 더더욱 즐겁게 합니다. 또한, 봄비가 내려 화단에 돌아나는 잎들과 땅 위에 다니는 곤충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캠핑장에 다녀오는 친구들의 이야기로 봄 나들이에 관심 가지며 '봄'이라는 주제로 '봄, 봄, 봄을 느껴요'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



# 유치원 마당에서 관찰한 봄의 변화 I

*"플 사이로 플라 새싹, 개미들이 보여요!"*

교실에서 돋보기로 관찰을 하던 친구들은 실제 돋보기 뿐만 아니라 OHP필름로 투명 관찰 도구를 만들어 유치원 마당에 있는 화단을 관찰하였습니다.

나는 꽃 모양으로  
만들거야!  
꽃으로 보는  
세상은 어떨까?



필름이 투명해서  
내가 그린 모양대로  
다 보여!!



우와, 나무가  
위에서도 자란다!!  
무슨 나무일까?



돋보기는  
나무 모양으로 만들면  
나무로보일 거야. 그치?



진짜 돋보기랑  
다르게 보이잖아?



## 유치원 마당에서 관찰한 봄의 변화 II

애들아,  
개미는 눈으로만 보고  
손으로 만지면 안돼!  
왜냐하면 개미는  
우리처럼 소중한잖아.



아냐,  
파리는 지금 자고  
있나봐?

우와, 파리도 있어!  
그런데 왜 안 움직이지?  
죽었나?



선생님! 여기 개미가 엄청  
많아요!  
개미 집도 있어요.

벌써 꽃이 피었네!  
이 꽃의 이름을 뭐까?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식물들과 곤충의 변화를 보면서  
생기 있는 봄을 느끼고  
자연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며  
보호하려는 멋진 마음이 생겨났어요.



# 서서울 호수공원에서 관찰한 봄의 변화 I

*“어? 이건 유치원에 없는 꽃인데 이름이 뭘까?”*

따뜻한 날씨에 달라진 바깥 풍경을 관찰하며 더욱 다양한 꽃과 나무를 관찰하고 싶은 아이들과 ‘서서울호수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더 많은 색깔의 꽃과 열매의 껍질들을 모아 ‘봄 팔레트’를 만들면서 봄에 피는 꽃의 종류와 열매, 그리고 낙화하는 것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꽃 진달래 같은데?



얘들아, 이것 봐봐!  
개미가 내 옷카드  
위로 올라왔어!



민들레도 흙씨처럼  
후~ 불면 날라갈까?

꽃 색깔이  
정말 알록달록하다.

아냐! 엄마가 이거  
철쭉이라고 했어.



나는 보라색 꽃을  
좋아하니깐  
보라색 옷을 입어볼래.



# 서서울 호수공원에서 관찰한 봄의 변화 II

벚꽃이 다 떨어지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기 공원에는  
아직 남아있어요!!!

이 나무는 특이해.  
혼자 있잖아.

어? 콩 껍질 같은 게 있어.  
그런데 왜 있지?

꽃의 이름과 생김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공원 내 이용수칙과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유치원으로  
가져가서 관찰하자.

그런데 공원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도 주워서  
우리가 분리수거 하자.

다른 색깔은 다 있는데  
파란색 꽃만 없어!  
봄에는 파란색 꽃이  
안 피는 걸까?



## 다양한 방법으로 꽃 경험하기

“꽃이 시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민들레 흙씨를 타면 어디까지 날아갈까?”

예쁜 꽃이 시들어 떨어지는 모습에 안타까워 하는 친구들은 시들지 않는 꽃을 만들었습니다. 네모난 휴지 위에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과 색깔들로 가득 채운 후, 뿌린 물에 따라 퍼지는 색깔에 따라 꽃을 만들었습니다. 또, 민들레 흙씨에 색을 더하며 꽃이 되어 날아가는 표현도 했습니다.

내가 민들레 흙씨라면,  
산으로 날아갈거야.



우와~ 물을 뿌리니까  
내 무지개가 엄청 커져!



내 꽃은  
보라색이 번져서  
이렇게  
아름다워졌어.




내가 색칠한 거랑  
다른 색으로 변하네.



민들레 흙씨는 약해서  
썩 바람을 만나면  
뒤로 넘어지지 않을까?

# 봄꽃 카나페 만들기


꽃 모양의 찍기 틀을 이용해 딸기와 햄을 꽃 모양으로 만들고 크래커 위에 딸기잼을 올려 먹으니 더 맛있었어요.




잼을 골고루 바르면  
카나페가 맛있어질거야.

## [오감의 활용]


다양한 재료를 **눈**으로 보며,  
**손**으로 차곡차곡 쌓으며,  
**코**로 음식의 냄새를 맡고,  
친구들과 요리하는 과정을 **귀**로 듣고,  
완성된 요리를 **입**으로 맛보았습니다.



치즈가 꽃 모양으로 잘렸어.  
햄 위에 모양이 맞게  
올려놔야지.



이걸로 햄을 찍으면  
진짜 꽃 모양이 나올까?



너무 맛있다!!  
집에 가서 만들어 먹어야지.





# 캠핑장을 지어보자! I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우와~ 꽃 떨어지는 거 이쁘다!”

비가 내리면서 벚꽃이 눈처럼 떨어지고 초록잎들이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봄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고, 교실에도 떨어지는 꽃을 만들고 싶어하였습니다. 알록달록 셀로판지로 꽃을 만들어 천장에 달아놓으니 교실에 내리는 비를 피하려는 모습이 나타났고, 캠핑을 다녀온 친구가 소개한 캠핑장의 모습을 듣게 되어 비를 피할 수 있는 텐트를 설치하면서 캠핑장을 만드는 놀이로 이어졌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엄청 많이 붙어있어!



우와~ 내가 붙인 셀로판지 색깔로 보여! 교실에 달면 더 근사하겠지?



내가 민들레 홀씨라면, 산으로 날아갈거야.

돋보기를 만든 것처럼 다양하게 붙이면 엄청 빛날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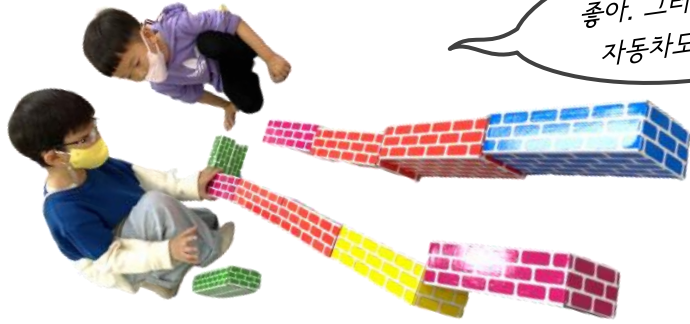


[ 봄비가 내리는 캠핑장의 모습 ]



# 캠핑장을 지어보자! II

캠핑장엔 나무도 있으니  
종이블록으로 만들어야겠다.



좋아. 그러면 나중에  
자동차도 만들자.

이게 비를 진짜  
막아주는 것 같아.  
모두들 비가 올 땐  
여기로 피해!



## [ 처음 만든 캠핑장의 모습 ]

우리는 캠핑장으로  
들어오는 자동차 길을  
만드는 게 어때?



캠핑장 안에는 신발 벗고  
들어가야 하니깐,  
신발장을 만들래.



여보~ 내가 만든 요리야.  
한 번 먹어봐~  
정말 맛있겠지?



여기는 우리  
단짝들이랑 노는  
놀이터로 할까?  
다들 나를 따르려!



# 캠핑장에 무엇이 있을까?



어제 캠핑 다녀왔는데,  
따뜻한 불 위에서  
마시멜로우를 구워서 먹었어.

선생님! 그러면  
종이상자로 TV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요?

그럼 내가 먼저  
분홍색 스티커로  
종이상자를 꾸밀게.

그리고 나는 그 위에  
TV에 나오는 지구를  
만들어서 붙일게.



나도 예전에 캠핑 다녀온 적이  
있는데, 우리는 자동차에  
TV도 있었어.



'마음 캠핑카'라고 하는 건 어때?  
왜냐하면 마음튼튼 2반에 있고,  
차로 변신하면 좋으니까.



\*\* 간판의 경우, 여러 후보군 중 아이들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하였습니다.



# 캠핑장에 필요한 것들 I

“그럼 캠핑장에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볼까?”

“그런데 캠핑장에서 잠은 어디서 자?”

캠핑놀이에 푹 빠진 친구들은 교실을 캠핑장으로 변신시키기위해 다양한 크기의 종이블록과 유니트블록을 이용하여 캠핑장 주변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캠핑장 안에서 열심히 놀이하다가 잠을 자고 싶지만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캠핑장에 침대가 있는 집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 < 꽃 울타리 >



내 얼굴을 여기에 그리고,  
엄마와 아빠를 옆에다가  
그려야지~



어때요? 봄에 피는 파란색 꽃  
을 만들었어요.

## < 신발장 >

처음에 바닥에 한 줄로 놓으니깐 좁았어.

그럼 2층 신발장을 만들자!



그럼 나무 블록이랑  
종이블록으로 새로 만들자!

저번에 컵으로 울타리를 만드니깐  
친구들이 지나다니다가 다 무너졌어.  
더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아이들이 처음 만든 캠핑장에서 놀이하던 중,  
불편했던 상황들을 의논하며 아이들의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 캠핑장에 필요한 것들 II

### < 집 만들기 >



집은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해!

우리가 먼저  
누워볼까?

그럼 넓게  
다시 만들자.

[ 문제점 발생 ]

“여기가 너무 좁아서  
누울 수 없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캠핑장처럼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깐  
신발장이 필요해.

### < 집 보수하기 >



누워보니까  
지금 이 훨씬 눕기 편한 것 같아.

## 캠핑장에 필요한 것들 III

“캠핑장에서 먹었던 마시멜로우가 진짜 맛있었어.”

“그럼 음식을 구울 불이 필요한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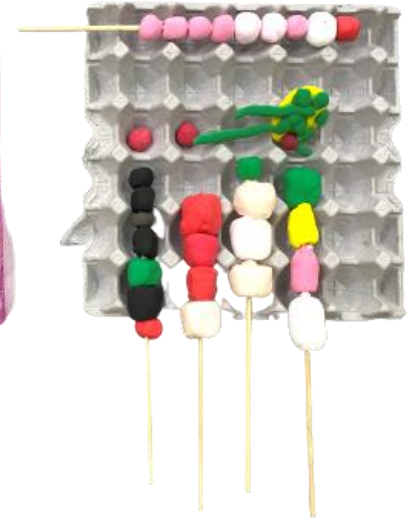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온 경험이 있는 한 친구의 이야기에 캠핑장에서 먹을 다양한 크기의 마시멜로우와 화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음식을 올려놓는 식탁과 불이 없다는 것을 안 아이들은 재활용품으로 도구를 만들며 캠핑장 놀이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 < 여러 가지 음식 >

우리는  
마카롱을  
만들게.

나는 쿠키를  
구워 먹을 거야.

맛이 다 다른  
마시멜로우!



거기에 꽃을  
올리면 완성!



동글동글 말아서  
누르고~



# 캠핑장에 필요한 것들Ⅳ

## < 식탁 >



먼저 빨간색  
스티커로  
상자를 덮자.



그럼 우리가 그리고  
싶은 것을 담자.

옆에는 알록달록  
마카로 꾸밀까?



나는 셀로판지를 붙여서  
꽃처럼 빛났으면 좋겠어.

## < 여러 가지 불 >



이 상자가 작아서  
불을 만들기 좋을 것 같아.



불을 키는 버튼도  
만들어야지!



캠핑장은 추우니깐  
보일러가 있어야 해.



## 캠핑장에 필요한 것들 V

“그런데 캠핑장에서 다치면 어떻게 해?”

캠핑장 놀이가 계속되면서 한 아이가 불에 손을 데어 병원을 가야 한다고 했지만, 캠핑장 근처에 병원이 없어 치료를 받지못해, 교실 안쪽에 약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안에서 놀이하는 친구들이 많아져 복잡해지자, 캠핑장에 놀러 오는 친구들의 수를 정해 들어오면 좋겠다는 의견이 생겼고, 입장권을 나눠주는 매표소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 < 화관 >



### < 가랜드 >





# 캠핑장에 필요한 것들 VI

## < 약국과 매표소 >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를 맡고 있고,  
약국에서 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표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 < 초대장 >

초대장을 만들어서  
마음튼튼 1반 친구들을  
초대하러 가야지.



[ 마음튼튼 1반 교실 안 ]



마음튼튼 1반!  
1시에서 2시에  
마음캠핑장으로 놀러와.

# 마음튼튼 1반 친구들! 마음캠핑장으로 놀러 오세요 ♥

“우리가 만든 멋진 캠핑장에 다른 친구들도 불러서 같이 놀고 싶어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받아 캠핑장으로 들어간 아이들은 맛있는 음식도 먹고, 낮잠을 자고 싶을 땐 자고 일어나며, 아플 땐 약국에서 약을 사서 치료하기도 하면서 더욱 다양한 놀이가 되었습니다. 신나는 캠핑 놀이에 마음튼튼 1반 친구들을 초대하게 되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준비를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5분 후에  
마음캠핑장이 열립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 주세요.

마음캠핑장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입장권은 저에게 주세요.

캠핑장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신발장에 신발을 넣어주세요.

여기는 매표소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딱-)

노.서.아.입니다.



# 마음튼튼 1반 친구들! 마음캠핑장으로 놀러 오세요 ♥

(삐빅-) TV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키면 돼.



같이 먹으니깐 더 맛있다. 그치?



음~ 맛있다! 고마워.

이건 블루베리맛 마시멜로우인데, 엄청 맛있어. 먹어봐.



맞아. 그런데 우리 강아지한테 줄 밥도 있을까?

여기 주스 팔아요. 맛있는 주스 먹으러 오세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나요?



우리 강아지가 열이 나요.

아, 난 너무 피곤해서 여기서 쉬어야겠어.



## 프로젝트를 마무리 하며

캠핑장 놀이를 계획하며, 교실 주위를 꾸미고 친구들이 초대하는 과정까지 모든 놀이의 주체가 되어 놀이에 참여하면서 협동심, 문제 해결력, 자심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활발히 움직이며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교실을 활용하면서 재미와 즐거움을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맡은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며 캠핑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앞으로 마음튼튼 2반에서 놀이를 통해 자라날 아이들을 향한 무한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